

# 한글 맞춤법의 복합어와 파생어 표기에 대하여<sup>1)</sup>

한 재 영

- 1 논의에 앞서
  - 2.1 그간의 과정
    - 2.1.1 한글맞춤법 통일안의 개정 과정
    - 2.1.2 한글맞춤법의 논의 과정
  - 2.2 문제의 양상
  - 2.3 맞춤법의 전제 조건
    - 2.3.1 이론적인 문제
      - 1) 문자적인 자질
      - 2) 형태적인 자질
- 3) 발음과의 관계
- 4) 문자 체계
- 2.3.2 실용적인 문제
  - 1) 기억부담량 / 기능부담량
  - 2) 경계 구분에 대한 일반의 인식
- 3.1 한글 맞춤법의 내용 검토
- 3.2 '조선말 규범집'의 내용
- 4 결론에 대신하여

## 1 논의에 앞서

본고의 목적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글맞춤법의 복합어와 파생어에 관한 규정들을 살펴보는 데에 있다. 한글 맞춤법을 사용하는 이들이 어렵다고 생각하게 되는 내용의 중심에 바로 복합어와 파생어의 표기가 있으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바로 한글 맞춤법이 가지고 있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복합어와 파생어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다고 하더라도 맞춤법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충분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sup>2)</sup>. 여기서 우리는 문제의 성격을 보다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는 바, 그를 위하여 특히 한글

---

1) 본고는 1990년 10월 18일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개최된 제3회 정기발표회에서의 구두 발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2) 한글 맞춤법 내에서 복합어와 파생어에 관한 규정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다시 살펴계 될 것이다.

맞춤법이 정하여지는 과정에서<sup>3)</sup> 많은 논란이 있어 왔던 조항들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논의의 거리가 되어 왔던 내용들은 바로 우리가 검토해야 해야 할 내용이기도 하거니와 그간의 고민의 과정은 바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내용을 보여 줄 것이기 때문이다. 유의해야 할 것은 문제점의 도출과정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시각은 그간의 논의의 과정에서 제기된 내용들이 가지고 있는 타당성의 근거도 함께 생각해야 하리라는 것이다.

논의 진행의 편의를 위하여 본고가 취하는 기본적인 태도를 미리 밝혀 두자면 다음과 같다.

- (1) ㄱ. 한글 맞춤법은 국어정서법의 일부로 이해되어야 한다.
- ㄴ. 현행 한글 맞춤법이 취하고 있는 형태음소적 원리가 문자 사용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음소적 원리보다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위의 (1)은 한글 맞춤법이 취하고 있는 전제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1ㄱ)과 (1ㄴ)은 사실은 동어반복적인 표현인 셈이다. 우리의 문자 생활의 현실이 아직은 한자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한자 사용의 정당성이 문자 사용시의 시각적인 효율성에 근거를 두고 있고, 넓은 의미에서의 국어 정서법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문자들인 한자와 한글의 사용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자와 한글의 사용 관계와 함께, 한글 맞춤법의 형태음소적 원리가 이해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sup>4)</sup> 아울러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근거로 한 현행 한글 맞춤법으로의 개정은 문자 생활의 현실을 반영하는 쪽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사실도 우리가 취하는 태도의 타당한 근거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기왕의 맞춤법에 대한 태도 즉 음소적 원리를 택하느냐 아니면 형태음소적 원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깊이 논의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현행 한글 맞춤법이 지니고 있는 그 자체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그가 취하고 있는 원리 속에서 검토해

3) 뒤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겠지만, '한글 맞춤법이 정하여진 과정'이라는 표현의 내포는 두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생각해야 한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공포된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 수정되어 온 과정이 그 하나이며, 현행 한글 맞춤법이 확정되기까지 있어 왔던 몇 차례의 개정안의 내용이 또 다른 하나이다.

4) 우리의 궁극적인 문자 생활의 목표가 한글 전용에 있다고 하더라도 형태음소적 원리가 그 정당성을 계속 가지고 있으리라는 점에 대해서는 안병희(1988)을 참조할 것.

보고자 하기 때문이다.<sup>5)</sup>

이상과 같은 기본적인 태도를 가지는 본고에서 주로 다루고자 하는 문제는 복합어와 파생어에 관한 한글 맞춤법에서의 내용들이다. 복합어와 파생어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뒤에서 다시 논의가 되겠지만, 복합어와 파생어의 표기는 그들의 표기에 대한 규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글 맞춤법이 규정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과도 어느 정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아무튼 본고의 일차적인 관심 대상은 한글 맞춤법의 제19항에서부터 제31항에 이르는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과 '합성어 및 접두사가 붙은 말'들에 있다. 한글 맞춤법 전체 속에서의 비중도 비중이려니와 다음 절에서 살필 그간의 개정 또는 수정 작업의 주요한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먼저 살피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이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우리의 논의를 진행해 보기로 하자. 우선 그간의 과정 즉 '한글맞춤법 통일안'의 개정 과정과 문교부와 학술원 그리고 국어연구소를 거친 현행 한글 맞춤법에 관한 논의 및 그 수정과정을 살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양상에 주목하기로 한다. 그를 통하여 맞춤법이 갖추어야 할 조건에 관하여 생각해 보고, 그에 따른 한글 맞춤법의 문제점을 살펴 보면, 그 과정에서 우리는 북한의 '조선말 규범집'의 맞춤법에 관한 내용도 아울러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sup>6)</sup>

## 2.1 그간의 과정

현행 한글 맞춤법이 가지고 있는 제반 문제점을 알아 보기 위해서는 우선 한글 맞춤법이 있기까지의 과정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바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개정 과정이 그 하나이고, 현행 한글 맞춤법이 있기까지의 논의 과정이 그 하나이다.<sup>7)</sup> 이제 그들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자.

5) 형태음소적 원리의 장점을 잘 설명하고 있는 글로는 이익섭(1971, 1977)이 있다.

6) 그와 함께 살펴야 할 내용으로는 한글학회의 맞춤법안이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 대상인 파생어와 복합어의 표기에 대한 내용은 한글 맞춤법과 달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어 여기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기로 한다.

### 2. 1. 1 한글맞춤법 통일안의 개정 과정

주지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은 그간 다섯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1937년과 1940년 그리고 1946년과 1948년 및 1958년의 개정이 바로 그것이다. 그 가운데 37년과 48년 그리고 58년의 개정은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면 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들은 내용에 대한 개정이 아니라 단지 용어 또는 표현만을 바꾼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용의 개정이라고 할 수 있는 40년과 46년의 개정 내용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1940년 6월 15일의 두 번째 개정은 본문 제19항과 제29항 및 제30항 그리고 부록의 문장부호의 내용에 대한 증보 수정을 그 내용으로 한다. 아울러 통일안의 명칭 표기를 ‘마춤법’에서 ‘맞춤법’으로 적기로 하였다. 제19항의 수정은 동사 파생 접미사 가운데 ‘-후-’로 적던 것을 ‘-추-’로 적도록 한 것이고, 제29항은 복합명사를 이루면서 탈락하는 ‘ㄹ’에 관한 것으로 종전에는 ‘ㄹ’이 유지되는 예와 탈락되는 예를 비교하여 보도록 함께 제시한 반면에 개정안에서는 탈락되는 경우의 예들만을 보이고 있다.<sup>8)</sup>

1946년 9월 8일의 세 번째 개정에서는 ‘변격 용언(불규칙 용언)’의 표기를 낱한 대로 적기로 한 제10항의 내용에 ‘ㄴ, ㄹ’ 아래 이를테면 ‘신다, 검다’ 등이 활용할 경우에 나타나는 된소리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을 붙이고, ‘사이시옷’의 표기를 규정한 제30항의 내용을 ‘복합명사나 또는 복합명사에 준할 만한 말에서 두 말 사이에 된소리가 나거나 또는 다시 구개음화한 ㄴ이나 ㄹ 소리가 나는 것은, 윗 말의 끝소리가 홀소리인 경우는 ㅅ을 받치어 적고, 닿소리인 경우는 이를 표시하지 않기로’ 바꾸었으며, 한자음의 속음을 속음대로 표기하기로 한 제48항의 내용에도 속음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경우에는 속음과 관계없이 본음으로 표기하기로 하는 단서 조항을 붙였다. 그 밖에도 제61항에는 띄어쓰거나 붙여 쓰는 것에 대하여 여유를 두어 적당히 붙이거나 띄어쓸 수 있도록 허용하는 단서를 붙였으며, 띄어쓰기에

\*) 통일안의 개정 과정에 대해서는 한글학회(1982)와 이희승·안병희(1989)가 참고가 되고, 현행 맞춤법의 논의 과정에 대해서는 이상억(1983)과 문교부, 학술원, 국어연구소의 자료가 참고가 된다. 자료목록에 대해서는 뒤의 (2)를 참조할 것.

1) 이른바 약속의 원리에 보다 충실한 내용으로 바뀐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약속이란 단순하고 간단할수록 지키기 쉬울 것이기 때문이다.

관한 규정인 62, 63, 64항을 삭제하는 데에 따라 제65항을 제62항으로 삼고, 제63항을 두어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 명사의 각 단어를 띄어쓰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수정안의 내용은 처음에 발표된 통일안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많지 않은 수정의 내용이 그리 간단한 문제라 보아 넘길 수만은 없는 형편이다. 수정의 대상이 되었던 문제는 파생어와 복합어의 표기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이들 문제는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 밖에도 한자어의 표기라든가 띄어쓰기에 관한 문제가 수정의 대상이 되었으나, 한자어의 표기를 제외한다면 띄어쓰기 문제도 파생과 복합에 관한 문제를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와 상당한 정도로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해한다면 본고에서 주로 살피고자 하는 파생과 복합의 문제는 그 문제의 뿌리가 상당히 깊은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다음에 살필 현행 맞춤법의 논의 과정에 관해서는 주로 파생과 복합 문제에 대한 논의에 주목하기로 한다.

### 2.1.2 한글 맞춤법의 논의 과정

현행 한글 맞춤법이 있기까지는 구체적인 작업이 시작된 시점인 1970년으로부터도 약 20년 남짓이 소요되었으며, 그 동안 작업의 주체도 문교부에서 학술원으로, 학술원에서 다시 국어연구소로 바뀌어왔다. 여기서 말하는 ‘논의 과정’이 해당 작업 주체가 작업하는 과정 속의 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의 논의 과정이 어떠한지 간에 본고에서는 그들의 결과를 살피는 보다 넓은 의미의 논의 과정을 살피기로 한다. 여기서 현행 한글 맞춤법의 논의 과정을 살피기 위하여 대상으로 삼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 (2) ㄱ. 1979. 3. 한글 맞춤법 개정 시안, 문교부
- 나. 1979. 12. 맞춤법안, 문교부
- 다. 1983. 12. 맞춤법 개정안, 학술원
- 르. 1984. 12. 맞춤법 개정안, 학술원
- ㅁ. 1987. 9. 한글 맞춤법안, 국어연구소

그 밖에도 국어연구소에서 1987년에 만든 ‘한글 맞춤법 개정안’ 두 가지와 ‘한글맞춤법 개정안의 주요 변경 조항’ 세 가지가 참고 자료로 이용될 것이다.<sup>9)</sup>

이제 그들의 각각을 살펴보기로 하자. 편의상 위의 (2)에 보인 자료를 (2)에 붙인 기호대로 각각 ‘ㄱ, ㄴ, ㄷ, ㄹ, ㅁ’이라 하기로 하고, 그들 가운데에서 파생과 복합에 관련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기로 한다.<sup>10)</sup>

### 2. 1. 2. 1 제19항

제19항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1. ‘-이’가 붙어서 명사로 된 것

길이      깊이      높이      다듬이      땀받이      달맞이  
 먹이      미닫이      벌이      벼훑이      살림살이      쇠붙이

2.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

걸음      묶음      믿음      얼음      엮음      울음      웃음      줄음  
 죽음      앞      만듦

3. ‘-이’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

같이      굳이      길이      높이      많이      실없이      좋이      짓듯이

4.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

밝히      익히      작히

다만,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바뀐 것이라도 그 어간의 뜻과 멀어진 것은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굽도리      다리〔髒〕      목거리(목병)      무너리  
 꼬끼리      거름(비료)      고름〔膿〕      노름(도박)

〔붙임〕 어간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9) 각각 제목을 같이 하는 자료이지만 내용은 다소의 차이를 보인다.  
 10) 위의 각 자료에서 매겨진 순서는 각기 다르지만, 현행 한글 맞춤법의 내용을 먼저 알아보고, 그와 관계가 있는 각 자료의 해당 부분을 찾아가 살펴기로 한다. 그에 따라 현행 맞춤법과 내용이나 예가 같은 경우까지 일일이 소개하는 것은 피하고, 현행 맞춤법과 다른 부분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기로 한다.

(1) 명사로 바뀐 것

귀머거리 까마귀 너머 뜨더귀 마감 마개  
 마중 무덤 비렁뱅이 쓰레기 울가미 주검

(2) 부사로 바뀐 것

거뭇거뭇 너무 도로 뜨덤뜨덤 바투  
 불긋불긋 비로소 오긋오긋 자주 차마

(3) 조사로 바뀌어 뜻이 달라진 것

나마 부터 조차

- ㄱ. 쇠부치, 일가부치
- ㄴ. 쇠부치, 일가부치
- ㄷ. 쇠부치, 일가부치
- ㄹ. 쇠부치, 일가부치
- ㅁ. 쇠붙이

2.1.2.2 제20항

제20항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1. 부사로 된 것

곳곳이 날날이 뽕뽕이 살살이 앞앞이 집집이

2. 명사로 된 것

곰배팔이 바둑이 삼발이 애꾸눈이 육손이 절뚝발이/절름발이

[붙임]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끄락서니 고틀머리 모가치 바가지 바깥 사타구니  
 싸라기 이파리 지붕 지푸라기 짜개

제20항의 예에 대한 표기는 각 자료가 일치할 보이고 있다. 다만 예시한 자료 가운데 몇몇 더 들고 있는 예가 있을 뿐이다.<sup>11)</sup>

11) 각 자료의 규정과 예에 대한 표기가 일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뜻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그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 ㄱ. 모가지, 부라부라, 며칠
- ㄴ. 모가지, 부라부라, 며칠
- ㄷ. 모가지, 부라부라, 며칠
- ㄹ. 모가지, 부라부라, 며칠
- ㅁ.            부라부라

2.1.2.3 제21항

제21항 명사나 혹은 용언의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1 명사나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 1. 명사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것  
    값지다    출지다    넋두리    빛깔    옆당이    앞사귀
  - 2.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것  
    낙시    늑정이    덮개    뜯개질    값작값작하다  
    값작거리다    뜯적거리다    뜯적뜯적하다    굶다랄다    굶적하다  
    값속하다    늑적하다    늑다랄다    늑수그레하다    엷죽엷죽하다
- 다만, 다음과 같은 말은 소리대로 적는다.

- (1) 겹받침의 끝소리가 드러나지 아니하는 것  
    할짝거리다    넌따랄다    넌찍하다    말끔하다    말속하다    말짱하다  
    실쪽하다    실큼하다    알따랄다    알팍하다    짤따랄다  
    짤막하다    실컷
- (2) 어원이 분명치 아니하거나 본뜻에서 멀어진 것  
    넌치    올무    꿀막하다    납작하다

- ㄱ. 늑다랄다, 늑적하다, 늑적하다, 민브다, 앓다랄다, 앓직하다, 앓팍하다, 째다랄다, 각작각작하다, 극적극적하다, 악죽악죽하다, 억죽억죽하다, 서뿌르다, 넘적다리
- ㄴ. 늑다랄다, 늑적하다, 넘적하다, 민브다, 앓다랄다, 앓직하다, 앓팍하다, 째다랄다, 값작값작하다, 서뿌르다
- ㄷ. 넌따랄다, 늑적하다, 넌찍하다, 알따랄다, 알팍하다, 짤따랄다, 짤막하다    다    각작각작하다, 극적극적하다, 악죽악죽하다, 억죽억죽하다, 선뿌르다



- ㄹ. 널따랗다, 널찍하다, 넓적하다, 알따랗다, 알팍하다, 짤따랗다, 짤막하다  
 다 갑작갑작하다, 압죽압죽하다, 엷죽엷죽하다, 넓적다리
- ㅁ. 널따랗다, 널찍하다, 넓적하다, 알따랗다, 알팍하다, 짤따랗다, 짤막하다,  
 다, 갑작갑작하다, 엷죽엷죽하다, 넓적다리

2. 1. 2. 4 제22항

제22항 용언의 어간에 다음과 같은 접미사들이 붙어서 이루어진 말들은 그 어간을 밝히어 적는다.

1. '-기-, -리-, -이-, -히-, -구-, -우-, -추-, -으키-, -이키-, -애-'가 붙는 것
- |     |     |     |      |      |     |
|-----|-----|-----|------|------|-----|
| 말기다 | 웁기다 | 웃기다 | 쫓기다  | 뚫리다  | 울리다 |
| 낙이다 | 쌀이다 | 활이다 | 굳히다  | 굽히다  | 넓히다 |
| 앉히다 | 엷히다 | 잡히다 | 돈구다  | 숫구다  | 돌우다 |
| 갓추다 | 곧추다 | 맛추다 | 일으키다 | 돌이키다 | 없애다 |

다만, '-이-, -히-, -우-'가 붙어서 된 말이라도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소리대로 적는다.

- |           |           |     |           |
|-----------|-----------|-----|-----------|
| 도리다(칼로~)  | 드리다(용돈을~) | 고치다 | 바치다(세금을~) |
| 부치다(편지를~) | 거두다       | 미루다 | 이루다       |

2. '-치-, -뜨리-, -트리-'가 붙는 것
- |     |     |             |           |           |           |
|-----|-----|-------------|-----------|-----------|-----------|
| 놓치다 | 덮치다 | 떠받치다        | 받치다       | 발치다       | 부딪치다      |
| 뺨치다 | 엮치다 | 부딪뜨리다/부딪트리다 | 쏟뜨리다/쏟트리다 | 찢뜨리다/찢트리다 | 훑뜨리다/훑트리다 |

(붙임) '-엷-, -음-, -브-'가 붙어서 된 말은 소리대로 적는다.

- |     |     |     |
|-----|-----|-----|
| 미덥다 | 우습다 | 미쁘다 |
|-----|-----|-----|

- ㄱ. 이르키다, 도리키다  
 ㄴ. 일으키다, 돌이키다  
 ㄷ. 일으키다, 돌이키다  
 ㄹ. 일으키다, 돌이키다  
 ㅁ. 일으키다, 돌이키다

2. 1. 2. 5 제23항

제23항 ‘-하다’나 ‘-거리다’가 붙는 어근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ㄱ	ㄴ
갈쪽이	갈쭈기	살살이	살사리
꿀꿀이	꿀꾸리	쌩쌩이	쌩새기
눈감짜이	눈감짜기	오뚝이	오뚜기
더떨이	더퍼리	코납작이	코납자기
배불뚝이	배불뚜기	푸석이	푸서기
삐죽이	삐주기	흘쭈이	흘쭈기

(불임)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없는 어근에 ‘-이’나 또는 다른 모음으로 시작되는 접미사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개구리	귀뚜라미	기러기	깍두기	팽파리	날라리
누더기	동그라미	두드러기	딱따구리	매미	부스러기
뼈꾸기	얼루기	칼썩두기			

- ㄱ. 꿀꾸리, 날나리, 쌩새기, 살사리, 푸서기
- ㄴ. 꿀꾸리, 날나리, 쌩새기, 살사리, 푸서기
- ㄷ. 꿀꾸리, 날나리, 쌩새기, 살사리, 푸서기
- ㄹ. 꿀꾸리, 날나리, 쌩새기, 살사리, 푸서기
- ㅁ. 꿀꾸리, 날나리, 쌩새기, 살사리

2. 1. 2. 6 제24항

제24항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시늉말 어근에 ‘-이다’가 붙어서 된 용언은 그 어근을 밝히어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ㄱ	ㄴ
깜짝이다	깜짜기다	속삭이다	속사기다
꾸벅이다	꾸버기다	속덕이다	속더기다
고덕이다	고덕기다	울먹이다	울머기다
뒤척이다	뒤처기다	움직이다	움지기다
들먹이다	들머기다	지껄이다	지꺼리다
망설이다	망서리다	퍼덕이다	퍼더기다
번득이다	번드기다	허덕이다	허더기다
번쩍이다	번쩌기다	혈떡이다	혈떠기다

ㄱ과 ㄴ에서만 ‘꾸불이다’로 적을 것을 예로 보이고 있고, 다른 자료와 현행 맞춤법에서는 예로 드는 항에서 제외하고 있다.

### 2.1.2.7 제25항

제25항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거나, 부사에 ‘이’가 붙어서 뜻을 더하는 경우에는 그 어근이나 부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1.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는 경우

급히    꾸준히    도저히    딱히    어렵פות이    깨끗이  
 [붙임] ‘-하다’가 붙지 않는 경우에는 소리대로 적는다.

갑자기    반드시(꼭)    슬며시

2. 부사에 ‘-이’가 붙어서 역시 부사가 되는 경우

곰곰이    더욱이    생긋이    오뚱이    일찍이    해죽이

ㄱ. 특히

ㄴ. 특히

ㄷ. 특히, 극히

ㄹ. 특히, 극히

ㅁ. 특히, 극히

2. 1. 2. 8 제26항

제26항 ‘-하다’나 ‘-없다’가 붙어서 된 용언은 그 ‘-하다’나 ‘-없다’를 밝히어 적는다.

1. ‘-하다’가 붙어서 용언이 된 것  
 딱하다    숲하다    착하다    텃텃하다    폭하다
2. ‘-없다’가 붙어서 용언이 된 것  
 부질없다    상없다    시름없다    열없다    하염없다

ㄱ에서 ㄹ까지의 각 자료에 소개된 예가 몇몇 다를 뿐 대부분 일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2. 1. 2. 9 제27항

제27항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리거나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은 각각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국말이	꾸꿍이	꽃잎	끝장	물난리
밀천	부엌일	싫증	옷안	웃웃
젓몸살	첫아들	칼날	팔알	헛웃음
흠아비	흠몸	흠내		
값없다	겉늬다	굵주리다	낮잡다	맛먹다
반내다	벌놓다	빚나가다	빚나다	새파랗다
생노랑다	시꺼멧다	싯누렇다	엇나가다	엷누르다
엇들다	웃오르다	짓이기다	헛되다	

[붙임 1] 어원은 분명하나 소리만 특이하게 변한 것은 변한 대로 적는다.

할아버지      할아범

[붙임 2] 어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골병    골탕    골탕    며칠    아재비    오라비

업신여기다    부리나케

[붙임 3] ‘이[齒, 齒]’가 합성어나 이에 준하는 말에서 ‘니’ 또는 ‘리’로 소리날 때에는 ‘니’로 적는다.

간니      덧니      사랑니      송곳니      앞니      어금니  
 윗니      젓니      톱니      틀니      가랑니      머릿니

- ㄱ. 골병(→원형을 밝히어 적는 예로 소개), 이[齲]에 대한 예는 없음
- ㄴ. 골병(→원형이 분명하지 않은 예로 소개), 이[齲]에 대한 예는 없음
- ㄷ. 이[齲]에 대한 예는 없음
- ㄹ. 이[齲]에 대한 예는 없음
- ㅁ. 서뿌르다(→어원이 분명하지 않은 예로 소개)

### 2. 1. 2. 10 제28항

제28항      끝소리가 ‘ㄹ’인 말과 딴 말이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 나는 대로 적는다.

다달이(달-달-이)	따님(말-님)	마되(말-되)
마소(말-소)	무자위(물-자위)	바느질(바늘-질)
부나비(불-나비)	부삼(불-삼)	부손(불-손)
소나무(솔-나무)	싸전(쌀-전)	여닫이(열-닫이)
우짚다(울-짚다)	화살(활-살)	

- ㄱ. 차돌, 차조
- ㄴ. 차돌, 차조
- ㄷ. 차돌, 차조
- ㄹ. 차돌, 차조
- ㅁ. 현행 맞춤법과 규정 내용 및 용례가 동일

### 2. 1. 2. 11 제29항

제29항      끝소리가 ‘ㄹ’인 말과 딴 말이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ㄷ’ 소리로 나는 것은 ‘ㄷ’으로 적는다.

반질고리(바느질~)	사훈날(사훈~)	삼진날(삼질~)
섬달(설~)	순가락(술~)	이튼날(이틀~)

잔주름(잘~)                      풀소(풀~)                      설부르다(설~)  
 잔다듬다(잘~)                      잔다랗다(잘~)

- ㄱ. 서뿌르다
- ㄴ. 서뿌르다
- ㄷ. 설부르다
- ㄹ. 설부르다
- ㅁ. 서뿌르다

2. 1. 2. 12 제30항

제30항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

1.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고랫재	긋밥	나룻배	나뭇가지	넋가	뎡가지
뒷갈망	맷돌	머릿기름	모깃불	뭇자리	바닷가
뺨길	뺨가리	부싷돌	선짓국	씻조각	아랫집
우렁이속	잊자국	젓더미	조갯살	찻집	헛바퀴
킷값	핷대	헛별	헛바늘		

(2) 뒷말의 첫소리 ‘ㄴ, ㅁ’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멧나물	아랫니	텃마당	아랫마을	뒷머리
잇몸	깻묵	넋물	빗물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

도릿깻열	뒷웃	두렛일	뒷일	뒷입맛
베갯잇	웃잇	깻잎	나뭇잎	뎡잎

2.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긋병	머릿방	뺨병	붓독	사자밥
씻강	아랫방	자릿세	전셋집	찻잔
찻종	춧국	긋병	뎡줄	텃세
핷기	헛수	헛가루	헛배	

(2) 뒷말의 첫소리 ‘ㄴ, ㅁ’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젓날 제삿날 훗날 뒷마루 양치물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

가뭇일 사삿일 예삿일 훗일

3. 두 음절로 된 다음 한자어

곳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차간(車間) 퇴간(退間)

횡수(回數)

ㄱ. 사이시옷을 붙이지 않는 경우(뒷말의 끝소리가 닿소리인 경우) 예시 한 자어의 경우도 사이시옷을 붙임

ㄴ. 사이시옷을 붙이지 않는 경우 예시(앞말이 닿소리로 끝난 말, 앞말이 두 음절 이상인 말, 복합명사가 아닌 말) 단 ‘ㄴ’이 덧나는 경우에는 사이시 옷 표기

따라서 한자어의 경우도 사이시옷을 붙임

ㄷ. 셋방(貰房), 숫자(數字), 제삿상(祭床), 초병(醋瓶), 덧수(代數)

ㄹ. 셋방(貰房), 숫자(數字), 제삿상(祭床), 초병(醋瓶), 덧수(代數)

ㅁ. 셋방(貰房), 숫자(數字)

### 2. 1. 2. 13 제31항

제31항 두 말이 어울릴 적에 ‘ㅂ’ 소리나 ‘ㅎ’ 소리가 덧나는 것은 소리대로 적는다.

1. ‘ㅂ’ 소리가 덧나는 것

덥싸리(대ㅂ싸리)      멍쌀(메ㅂ쌀)      범씨(버ㅂ씨)

입때(이ㅂ때)      입쌀(이ㅂ쌀)      접때(저ㅂ때)

좁쌀(조ㅂ쌀)      험쌀(해ㅂ쌀)

2. ‘ㅎ’ 소리가 덧나는 것

머리카락(머리ㅎ가락)      살코기(살ㅎ고기)      수캐(수ㅎ개)

수컷(수ㅎ것)      수탉(수ㅎ닭)      안팎(안ㅎ밖)

암캐(암ㅎ개)      암컷(암ㅎ것)      암탉(암ㅎ닭)

ㄱ. 뽕쌀(피ㅂ쌀), 이팍(이ㅎ밥), 조팍(조ㅎ밥)

- 나. 뽕쌀(피뽕쌀), 이팍(이ㅎ밥), 조팍(조ㅎ밥)
- 다. 이팍(이ㅎ밥), 조팍(조ㅎ밥)
- 라. 이팍(이ㅎ밥), 조팍(조ㅎ밥)
- 마. 현행 맞춤법과 동일

## 2.2 문제의 양상

지금까지 우리는 현행 맞춤법이 있기까지의 과정의 대강을 살펴, 그 과정에서 드러난 차이점들을 정리해 보았다. 이와 같은 작업을 행한 이유는 우선 현행 맞춤법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이, 그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는 드러내 주리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미비된 규정의 보완이 아니라 문제 거리에 관한 여러 차례의 논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의 양상은 크게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sup>12)</sup> 그 첫째는 어간이나 명사의 원형을 밝혀 적느냐 아니면 소리나는대로 적느냐 하는 것이고, 둘째는 사이시옷의 표기에 관한 것으로 사이시옷을 어느 경우에 적고 어느 경우에 적지 않느냐 하는 것이 그것이다. 어간이나 명사의 원형을 밝혀 적기로 하는 경우에 당면하게 되는 가장 큰 문제는 해당 단어의 원형이나 어원을 찾아가는 일이며, 확실한 원형이나 어원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파생이나 복합의 과정을 거쳐 새로이 만들어진 단어가 원래의 단어와 상당한 의미의 차이를 보일 때의 표기를 선정하는 일 또한 그리 간단하지 않은 문제인 것이다. 즉 어휘화의 기준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사이시옷의 표기에 관한 기준 설정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가 된다. 논의 과정에서 몇 차례 바뀌는 과정을 거쳤던 예들이 바로 그러한 문제들을 드러내 보여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그간의 논의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표기안들은 모두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가지고는 있는 셈이다.

제19항의 ‘쇠부치, 일가부치’와 ‘쇠붙이, 일가붙이’, 제21항의 ‘넓다랗다, 넓적하다, 넓적하다, 얇다랗다, 얇직하다, 얇팍하다, 짹다랗다, 각각각각하구’와 ‘널따랗다, 널찍하다, 넓적하다, 알따랗다, 알팍하다, 짹따랗다, 짹막

2) 논의 과정에서의 완전한 합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음에 대하여서는 후술 참조.



하다, 갑작갑작하다’, 제22항의 ‘이르키다, 도리키다’와 ‘일으키다, 들이키다’, 제29항의 ‘서부르다’와 ‘선부르다’ 등에서 보이는 문제는 개별 어휘에 대한 어휘화의 단계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느냐 하는 문제와 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sup>13)</sup> 그 밖의 제23항의 ‘개구리, 얼루기, 뼈꾸기’ 따위나 제25항의 ‘갑자기, 반드시, 슬며시’, 제27항의 ‘할아버지, 골병, 며칠, 부리나케, 간니, 젓니, 가랑니’와 제28항과 제29항의 ‘ㄹ’ 소리의 탈락이나 ‘ㄷ’으로의 변화와 관계가 있는 내용들에 적용된 기준도 사실은 개별 어휘 하나하나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간의 논의 과정을 보면, 사이시옷의 표기에 관한 문제도 상당한 난제임을 보여 주고 있다. 사이시옷을 붙이는 조건도 문제이지만, 한자어의 경우에도 사이시옷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사용하고자 하는 어휘가 사이시옷을 사용하는지의 여부를 기억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그 동안의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안들은 그들 나름대로 각각 상당한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러한 타당성이 용납되는 대상이 전체 체계나 규칙 전반이 아니라 개별 어휘 하나하나였다든 점은 지적되어야 할 부분이다. 파생이나 복합의 과정을 거친 어휘가 원형과 어느 정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판단은 물론 개별 어휘를 가지고 생각해야 할 문제이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원형과의 관계를 염두에 둘 때뿐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원형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에, 관계가 있는지의 여부와 있다면 어느 정도의 관계인지가 문제가 될 것이며, 실제로 한글 맞춤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들도 이러한 문제와 모종의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나서기에 앞서 해야 할 일은 답의 선정 기준을 찾는 일이다. 그를 위하여 맞춤법이 가지고 있어야 할 몇 가지 조건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기로 하자. 기본적인 조건에 대한 검토는 우리의 맞춤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도 있으리라는 기대때문이다.

13) 제31항에서 다루어졌었던 ‘이팍(이ㅎ팍), 조팍(조ㅎ팍)’의 경우는 문제의 성격이 다소 다른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 예는 어휘화나 어원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표준어 선정 문제와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맞춤법의 예로는 제외되어 있다. 맞춤법의 대상이 표준어라는 점에서 표준어규정도 함께 살펴야 할 것이나 표준어사정의 원칙이나 내용에 대한 검토는 본고의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다.

## 2.3 맞춤법의 전제 조건

한글 맞춤법에 관한 문제를 생각할 때에 고려해야 할 요소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바 이론적인 문제와 실용적인 문제가 있다. 이들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그 동안의 여러 논의들에 의해 이미 깊이 있게 다루어진 바 있다. 이론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문자적인 자질, 형태적 자질, 발음과의 관계 및 문자 체계(자소 체계) 등이 있으며, 실용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기억부담량과 기능부담량, 경계 구분에 대한 일반의 인식 등의 문제가 있다.

### 2.3.1 이론적인 문제

#### 1) 문자적인 자질

한글이 음소문자이고 음소문자가 문자 발달의 순서상 가장 나아간 것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거니와 음소문자라고 해서 표의문자나 음절문자에 비하여 모든 면에서 나은 것만은 아니라는 점도 이미 알려진 바와 같다. 한글 맞춤법이 체언과 용언의 어간을 고정시켜 적기로 하는 형태음소적인 표기법을 취한 것은 바로 표의문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음소문자인 우리 한글을 가지고도 누려 보고자 하는 의도였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 2) 형태적인 자질

여기서 말하는 형태적인 자질이라는 표현은 국어의 형태적인 면 즉 교착어로서의 국어를 표기하기에 적합한 표기 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물론 교착어라든가 굴절어, 고립어 등의 분류가 상대적인 것이고 또한 편의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국어의 경우에는 유용한 개념이 될 수 있다. 복합어나 파생어를 만들어 간다고 할 경우 언중의 의식 속에서 어간이나 어근과 접사나 후행요소를 구분하는 것이 그리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 어간이나 어근의 분리, 구분이 힘든 경우가 있을 수는 있다. 이른바 어휘화된 단어들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어휘화의 정도가 문제가 되기는 하겠지만, 어간이나 어근의 형태를 밝히기가 어려운 경우는 이미 새로운 단어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어간이나 어간의 형태에 주목을 한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형태음소론적인 표기 방식을 취하기로 한 현행 맞춤법이 고정시켜 표기하기로 한 것은 어간이나 어근의 기본형일 뿐 어미나 접사의 기본형이 아니기 때문이다.

### 3) 발음과의 관계

한글 맞춤법 총칙 제1항에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기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리대로 적는다’는 것의 의미가 상대적인 것임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좀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음소문자인 한글로 적는 이상 한글로 적었다는 것은 모두가 소리대로 적힌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표의문자나 음절문자로 적힌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나름대로 읽히는 음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어느 정도는 표음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역으로 본다면 표음문자라고 하더라도 소리를 그대로 적어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라고 까지 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리대로 적는다’는 것’이 상대적이라는 지적은 그 근거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소리대로 적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국어의 형태적인 자질과 한글의 문자적인 특성을 함께 고려한다면 어느 정도의 여유를 둘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4) 문자 체계

문자 체계에 대하여 생각해 볼 문제로는 ‘소리대로 적는다’고 하는 취지에 맞추기 위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문자로 나타내기 힘든 발음들을 표기하기 위한 새로운 문자를 도입할 것인가가 있다. 특히 외래어를 표기하고자 할 경우에 심각하게 제기되는 문제이지만 지금의 우리의 태도는 새로운 문자의 도입은 하지 않기로 하고 있다.

앞서 발음과의 관계에서도 잠시 언급한 바가 있지만 어차피 소리대로 적는다는 것이 어려운 것이라면 새로운 문자의 도입은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으리라는 점에서 온당한 처리라 할 것이다.

### 2.3.2 실용적인 문제

#### 1) 기억부담량 / 기능부담량

기억부담량에 대해서는 두 가지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되어야 한다. 그 하나는 규칙 자체에 대한 기억 부담이고, 다른 하나는 개별 어휘의 '표기에 대한 기억 부담이다.

실용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 어느 쪽이든 기억부담이 적어야 한다는 것이 추구해야 할 명제 내용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보자면, 한글 맞춤법 제23항의 용례에서 '씩씩이, 살살이'와 '씩씩기, 살살리' 중에 어느 것으로 표기해야 하는가를, 글을 쓰는 사람과 글을 읽는 사람의 양쪽 입장에서 볼 때에,<sup>14)</sup> 맞춤법의 규정대로 '씩씩이, 살살이'로 쓰는 것이 부담이 적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개구리'나 '얼루기'에 이르면 그들이 '개굴이'와 '얼룩이'보다 기억부담이 적은 것이라고 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기억부담량이 적은 것을 추구한다는 것이 우리의 명제라고는 하였지만 그 경우 고려해야 할 문제로는 기능부담량이 있다. 즉 기억부담은 적되 해당 표기가 가지고 있는 기능부담은 클수록 다시 말하자면 다른 어휘 표기와의 변별력이 클수록, 좋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맞춤법의 제21항에 보이는 '넓적하다'와 '널찍하다'의 경우를 보자면 그 어느 쪽도 충족시키기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 그들 각각을 따로 기억해야 하는 기억부담도 부담이려니와 그들 둘이 '넓다'라는 의미를 공유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면, 즉 기능적인 면에서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기억부담량을 줄인다는 면에서 이렇게 구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어느 한 쪽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나올 것으로 생각되고, 단일화할 경우에는 기능부담량을 높인다는 점에서 '넓적하다, 넓직하다'로 표기하는 것이 나올 것이다.<sup>15)</sup>

우리의 일상은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약속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약속을 지킨다고 할 때, 덜 까다로운 약속이 지키기 쉬운 약속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우리는

14) 문자의 사용이라는 면에서 본다면 독자의 입장이 우선이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이익섭(1971) 참조. 이익섭(1971)에는 필자는 하나인 데 반하여 독자는 글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무수히 많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어 있다.

15) '넓직하다'가 '너르다'에서 파생된 것이므로 '널찍하다'로 표기하는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그것을 약속 성립의 일반 원칙이라고 부르기로 하거니와 현행 맞춤법은 바로 그러한 약속 성립의 일반 원칙에 벗어나는 많은 경우를 보여 주고 있다.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이라는 내용도 그러하거니와, 우리가 주로 살펴 고 있는 복합어와 파생어에 관한 규정만을 보더라도 앞서 본 예들이 모두 ‘다만’이라든가 ‘붙임’에 제시된 예들이라는 점에서 역시 실제 사용시에는 부담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2) 경계 구분에 대한 일반의 인식

여기서 말하는 경계 구분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란 앞서 이야기한 바 있는 국어의 형태적 자질에 대한 일반의 인식을 말한다. 현행 맞춤법에서 어원이 분명하지 않은 것, 즉 원형을 밝히기 어려운 것에 대하여서는 소리대로 적기로 하였지만 그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사실은 어려운 형편이다. 그렇지만 어간 원형의 의미가 어느 정도로 인식되느냐 하는 것으로 기준을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기로 한 제19항의 ‘쓰레기’와 제20항의 ‘사타구니’를 비교해 보면 그 성격이 같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쓰레기’가 ‘비로 쓸다’와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지만 지금은 ‘쓰지 못하여 내다 버릴 물건의 총칭’으로 사용되고 있어 ‘쓸-’과 ‘-에기’의 결합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에 ‘사타구니’는 ‘두 다리가 갈린 곳의 사이 또는 두 물건 사이의 틈’이라는 의미의 ‘살’과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으며 ‘살’은 그 밖에도 ‘살결이, 살바, 살뚝’ 등의 예에서 여전히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 3.1 한글 맞춤법의 내용 검토

지금까지 우리는 맞춤법이 가지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 이제 그와 같은 견지에서 우리의 한글 맞춤법의 내용을 검토해 보기로 하자.

기본적인 우리의 태도는 위에서 밝힌 바에 따르기로 하고, 앞서 따로이 언급이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피기로 한다. 그와 함께 앞서 약속 성립의 일반적인 요건을 이야기한 바 있거니와 같은 맥락 속에서 우선

각 항의 ‘다만’ 조항과 ‘붙임’ 조항에도 주목하기로 한다. 물론 그와 같은 단서 조항을 가지지 않고 있는 조항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면에서 예외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면 그 또한 검토의 대상이 될 것이다.

우선 ‘다만’ 조항과 ‘붙임’ 조항의 성격이 본항에 대한 예외적인 것들의 인정이란 점에서 수용하지 않는 것을 기본적인 태도로 삼을 때에 그 단서 조항들의 처리 기준이 문제가 된다. 제19항의 경우를 보면, ‘다만’ 조항과 ‘붙임’의 (3)은 어간의 뜻과 떨어진 것이거나 뜻이 달라진 것들의 예를 보이고 원형을 밝혀 적지 않기로 하고 있다. ‘붙임’ (1)과 (2)도 명사나 부사로 바뀐 예들로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기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론적인 기준에서나 실용적인 기준으로 보더라도 ‘붙임’ (1)과 (2)의 경우는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이 나올 것으로 생각되고, ‘다만’과 ‘붙임’ (3)의 경우는 따로이 규정에 담을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어간의 뜻과 떨어진 것은 이미 새로운 어휘로 어휘부에 따로이 등재된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sup>16)</sup> 마찬가지로 제20, 21, 22, 23, 25, 27항 등의 ‘다만’이나 ‘붙임’ 조항들도 처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밖에도 맞춤법이 일반에게 부담이 되는 조항으로는 제25항의 ‘-히’나 ‘-기’를 붙여 부사를 만드는 경우의 ‘-이’와 ‘-히’의 선택 문제와 제30항의 사이시옷 표기에 관한 문제가 있다.

일반의 부담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와 ‘-히’의 선택 기준으로는 ‘-하다’가 붙을 수 있느냐의 여부로 단순화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어렵푼기, 깨끗이’의 경우가 그것으로 ‘어렵푼하다, 깨끗하다’에 기대어 ‘어렵푼히, 깨끗히’로 적는 것이 나올 것이다. 지금 ‘어렵푼이, 깨끗이’로 기억하여 적을 수 있다는 것보다 ‘새로이 가르쳐야 한다’는 면을 생각해 본다면, 기억 부담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며, [히] 음의 특성상 ‘어렵푼히, 깨끗히’로 적어도 [어렵푼이], [깨끗이]로 읽힐 것이기 때문이다.

사이시옷의 표기도 상당한 부담이 되는 부분이다. 우선 앞말이 모음으로 끝이 났는지, 뒷말이 된소리로 발음되는지, 아니면 ‘ㄴ’ 소리가 덧나는지를 따

6) 여기서 유의할 점은 해당 어휘의 어원이 무엇이나에 있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언어 사용자들이 어간과 새로 만들어진 어휘와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근거를 두어야 할 것이다. 맞춤법은 어원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저 보아야 하는 것도 그렇지만, 한자어의 경우에 사이시옷을 적어야 하는 여섯 개의 단어를 따로이 기억해야 하는 부담도 결코 적은 것이라고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다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자면 기본형의 형태를 고정시켜 적는다는 점에서는 예외적인 초처라고 할 것이다. 사이시옷에 대한 처리의 방법으로는 표기상의 사이시옷을 포기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이는 어떻게 보면 문제 회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된소리로 발음되면서도 사이시옷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이를 태면 앞말이 자음으로 끝난 경우에는 사이시옷이 표기상으로는 반영이 되지 않고도 그 변별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혹 ‘고기배’와 ‘고깃배’가 다르지 않은가 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경우에도 동음이의어나 다의어의 처리와 같은 맥락 속에서 동철이의어로 처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sup>17)</sup>

그밖에 ‘다만’이나 ‘붙임’ 등의 규정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제26항은 별도의 규정이 없어도 될 듯하다. ‘-하다’와 ‘-없다’가 붙어서 된 용언은 그 어간이 ‘-하-’와 ‘-없-’까지이므로 어간을 고정시켜 적는다는 우리의 기준에 따르면더라도 그대로 ‘-하-’와 ‘-없-’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다.

제28, 29항과 제31항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못한 셈이다. 어간을 고정시켜 적는 것도, 어휘화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도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현행 맞춤법과는 다소 다른 견해를 펴고 있는 ‘조선말 규범집’의 내용을 잠시 살펴 보기로 하자.

### 3.2 ‘조선말 규범집’의 내용

‘조선말 규범집’도 역시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근거를 둔 것이어서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세부적인 사항에 가서는 여러 가지 차이점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우선 ‘한글맞춤법’에서는 ‘-거리다’가 붙는 어근까지도 원형을 밝히어 적기로 한 반면에 ‘조선말 규범집’에서는 ‘-하다’가 붙는 어근의 원형만을 밝히어 적기로 하고 있으며, 맞춤법 제27항의 ‘붙임 3’에 ‘이〔齒, 齒〕’는 소리대

17) 영어의 예이기는 하지만 desert가 발음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음도 참고가 된다.

로 적기로 하였지만, 규범집에서는 ‘이’로 적도록 하고 있다. 사이시옷에 대해서도 다소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맞춤법에서와는 달리 규범집에서는 구체적인 규정을 삭제하고 있어 사이시옷의 표기를 하지 않고 있다. 어휘부의 발음 차이에 따른 구분으로 넘기고 있어 우리가 앞서 취한 태도와 같은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sup>18)</sup> 전반적으로 보아서는 규정 내의 ‘붙임’ 조항의 수가 적을 뿐더러 ‘붙임’의 내용이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도 않아 약속의 일반적인 원리에는 보다 충실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sup>19)</sup>

#### 4 결론에 대신하여

다소 장황한 듯이 보이기까지 했던 우리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현행 맞춤법이 있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서 파생과 복합의 문제가 적지 않은 것임을 인식하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 보고자 하였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맞춤법이 가지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조건들을 알아 보고, 그 가운데 특히 맞춤법도 일종의 약속이며, 약속을 정확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약속이 단순해야 한다는 점, 따라서 맞춤법의 규정에 단서 조항이 정리되어야 하고 단서 조항이 없는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단순화되어야 하리라는 태도를 취하였다. 어간의 원형을 가능한 밝히어 적기로 한 것이나, 사이시옷의 표기를 배제해 보고자 하는 일련의 생각들은 그와 같은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현행 맞춤법이 있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서 맞춤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찾아 보았지만, 맞춤법에 관한 논의 과정에서 일관된 모습을 보여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한 내용들도 우리가 살핀 맞춤법의 일반적인 조건에 비추어 살펴보면서 그들 가운데에도 적지 않은 문제가 있음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는 문제는 일반의 경계 구분에 대한 인식의 기준이 그 성격상 선명한 것이기 어렵다는 데에 있다. 이른바 어휘화에 대한

18) 그러나 규범집의 제15항 ‘붙임’에는 “소리가 같은 말인 다음의 고유어들은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적는다.”고 하면서 ‘셋별:새 별’, ‘빗바람:비바람’을 예로 들고 있어 사이시옷의 표기를 완전히 배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19) 각 조항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다만’ 조항이 ‘규범집’에는 보이지 않는다.



인식의 정도차가 그것으로 우리의 태도 표명을 유보한 제28, 29항과 제31항의 내용도 그러한 범위에 드는 성격의 것들이라고 할 것이다.

### 〈참고 논저〉

- 국어연구소(1988), 한글 맞춤법 해설, 서울:국어연구소.
- 김희진(1988), 쓰기 교육을 위한 한글 맞춤법 개정안 변천고, 한국교육논총(서울교대 초등교육연구소) 1.
- 남광우(1970), 현대 국어국자의 재문제, 서울:일조각.
- \_\_\_\_\_ (1971), 국어정서법안, 서울:일조각.
- 송철의(1989), 국어의 파생어형성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학위논문.
- 안병희(1985), 훈민정음 사용에 관한 역사적 연구 : 창제로부터 19세기까지, 동방학지 제46·47·48 합집.
- \_\_\_\_\_ (1988), 한글 맞춤법의 역사, 국어생활 제13호.
- 이기문(1963), 국어표기법의 역사적 연구, 서울:한국연구원.
- \_\_\_\_\_ (1980), 맞춤법의 역사적 고찰, 한국어 발전연구, 서울:유네스코 한국위원회.
- \_\_\_\_\_ (1983), 문자체계와 표기법, 한국어문의 체문제, 서울:일지사.
- 이민우(1988), 새 맞춤법 표준어에 따른 바른말 사전, 서울:탑출판사.
- 이병건(1977), 음운론의 측면에서 본 한글 맞춤법, 어학연구 13. 2.
- 이상억(1983), 현대 국어 정서법의 문제점들에 대한 종합 검토 : 맞춤법 개정을 앞두고, 어학연구 19. 2.
- 이승구(1987), 정서법자료, 서울:대한 교과서 주식 회사.
- 이은정(1988), 한글 맞춤법 표준어 해설, 서울:대제각.
- 이익섭(1963), 15세기국어의 표기법 연구, 국어연구 제10호.
- \_\_\_\_\_ (1971), 문자의 기능과 표기법의 이상, 김형규박사 송수기념논총.
- \_\_\_\_\_ (1977), 사고면에서 본 문자 언어의 기능, 어학연구 13. 2.
- 이정민·배영남 공저(1987), 개정증보판 언어학사전, 서울:박영사.
- 이현복(1979), 한글 맞춤법 개정 시안의 문제점, 한글 165.

- 이현희(1989), 한글의 운용과 「한글 맞춤법」, 문학과 사회 6, 서울:문학과지성사.
- 이희승(1959), 한글 맞춤법 통일안 강의, 서울:신구문화사.
- 이희승·안병희(1989), 한글 맞춤법 강의, 서울:신구문화사.
- 임홍빈(1981), 사이시옷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국어학 10.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어사정위원회(1988), 조선말규범집, 사회과학출판사.
- 최규일(1988), 한국어 어휘형성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호철(1988), 북한의 맞춤법, 국어생활 제15호.
- 한글학회(1984), 한글 맞춤법, 서울:한글학회.
- Venezky, R. L. (1970), The Structure of English Orthography, Mouton.